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다음 주일은 사랑방공동체(교회) 창립 3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예배는 3부(9시, 11시 30분, 오후 2시)로 나누어 드리며, 예배중에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 평양노회가 22일(목)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모입니다. 정재훈전도사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 임채정선교사 시술후 건강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군복무 중인 김선희선생 부상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한누리성도 가정에서 20일(화) 음식점을 개업합니다.
- 공동체운영위원회 정기회의가 오후 2시에 모입니다.
- 연령별사랑방 전체 교사회의가 오후 4시에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16 호
2021년 4월 18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가을 바람이 잦던 저녁 시간에, 한 남학생이 사물함 주위를 오가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30분전까지 한탄으로 점철된 기도를 하고 온 참이었습니다. 꼭 해야만 하는 일을 앞두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그것으로 괴로웠고, 마주할 현실이 고통스럽기에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산스럽게 자기 자리와 복도 사물함을 세 번 오가며 주저하던 그는, 끝내 미약한 목소리로 다른 학생 A에게 말을 겁니다. 잠시 빈 교실에 A를 부른 그는 떨면서 예전에 저질렀던 잘못을 언급하며 사과합니다. A는 찬찬히 듣더니 자신에게 사과한 그 학생을 용서합니다. 사과했던 학생은 깜짝 놀랍니다. 그 사건으로 둘의 사이가 몇 달간 멀어졌던 만큼, 이렇게(?) 어떠한 비난이나 탓함도 없이 용서받으리라곤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날 용서를 청했던 남학생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2007년, 제가 멧쟁이학교 학생으로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특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 분의 사랑은, 때론 '자비'로 표현되곤 합니다. 팔복으로 유명한 산상수훈에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마태5:7)"라는 문구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인에게 행하는 방향성이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내용은 다른 말씀들의 '자비'와 '용서'의 내용들과도 상통합니다. 무엇보다도 유명하고 익숙한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마태6:12)"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대목에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누가6:36)"고도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로 넘어가면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좀 더 직접적으로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마태 18:24-35)"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자신의 행적을 들어서 '이와 같이' 서로에게 하라고 종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처형했던 사람들조차 구

원의 손길에 포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였던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배신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인간의 악함을 누구보다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의 악함 또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와 잘못들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거리를 멀리하게 만들지언정, 사랑의 대상에서 벗겨나게 할 요인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롬8:39)"

사람은 연약합니다. 풀과 나무와 돌들이 부대끼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내듯이, 사람들 또한 미성숙함과 잘못된 지식 등으로 서로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회에서는 그런 연약함을 고려하는 것이 점점 더 쉽게 무시되곤 합니다. 지금도 매 주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체중보다 더 무거운 인공물(플라스틱, 건물 등)들을 만들고 있을 정도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인류 문명이지만, 마음들은 점점 더 척박해집니다. 함께 살아가는 데에는, 나 자신의 약함 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약함 또한 긍정해야 합니다. 죄와 아픔을 감싸 안는 포용이 필요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동화 속 악당처럼 변치 않는 악인으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멸받던 삭개오의 회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자비는 때로는 따르기엔 피나도록 힘겹고, 감정적으로 불편하고, 현실과는 동떨어져 보입니다. 찰스턴 지역에서 총기 난사로 가족을 잃었던 교인들 또한 그랬습니다. 그들에겐 용서하지 않을 권리와 그럴만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완치되지는 않을지언정, 그들은 범인을 용서하기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 것이며, 이후 천국에서 가족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약간의 다름만으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가볍게 인연을 끊거나, 타인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갑질 등을 쉽게 볼 수 있는 요즈음. 저를 인내하고 용서하셨던 분들의 기억을 뒤적거리면서, 저 또한 타인을 용서하는 도리를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나오는 대사를 옮겨보겠습니다. "정의대로 따른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자비를 얻기 위해 기도하며 그 기도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가르쳐줍니다."

한주간 말씀

“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
< 민수기 9장 18절a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창세기 10장

제목 :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지다

인도 : 최기찬 전도사

기도 : 이현숙 집사

찬송 : 478 539 251 505 286 312

1절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2-31절 야벳과 함과 셈의 자손

(2-5) 야벳의 자손 / (6-20) 함의 자손 / (21-31) 셈의 자손

32절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관찰: 홍수가 난 뒤에 노아의 아들들(셈과 함과 야벳)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해석: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 아래에서 번성한 것이다.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적용: 복음 안에서 다른 나라를 차별하지 말자. 이방나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자.

관찰: 창조 이후 구원을 받은(노아) 후손이다.

해석: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후손들이다.

적용: 구원받은 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감의 부담(불평)보다는 감사를 이야기 하자.

관찰: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구약의 역사를 설명하다.

해석: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적용: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자. 신앙인으로서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그 역사 안에서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서 시작되었다. 공동체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자.

미얀마 쿠데타 성명서

2월 1일 미얀마 시민들의 선택에 반하는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났어.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군부에 맞서 미얀마의 주권이 국민에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어. (결국) 권력을 유지하려는 쿠데타 세력과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 간에 무력 충돌이 벌어졌어.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에는 우리의 또래인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도 있어. 불의에 맞서 용감하게, 군부의 무차별 진압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야.

이런 미얀마의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많이 답답하고 미얀마의 친구들에게 “힘내, 이겨낼 수 있어”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미안해.

대한민국에도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민주주의의 선배들이 있어. 4.19민주화 혁명 / 5.18광주민주화운동 / 6월 민주항쟁과 같이 많은 민주화 운동이 있었어. 그 혁명의 중심에는 항상 청년, 청소년들이 있었지. 민주주의 선배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지금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었어. 민주주의의 선배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대한 갈망, 희생,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인간다움에 대한 사랑. 선배들이 일구어 놓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정신들을 계속 기억할 거야. 또 (우리는) 이 정신들이 언제 또 닥쳐올지 모르는 국가위기를 이겨내는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리며 싸우는 친구들아, 너희의 간절한 외침이 한국에 있는 작은 학교에도 닿았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아가던 너희의 용기를 기억할 거고, 정의로 빛나는 눈을 가진 너희를 응원할 거고, 불의 속 정직하게 걸어가는 너희의 걸음을 함께 할 거야.

19살, 꽃다운 나이에 군부의 총에 불꽃이 되어간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상징, 치알 신. 그(녀)의 옷에 새겨진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기억할 거야. 미얀마의 고통이 하루 빨리 사라지고 미얀마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국민이 온전히 나라의 주인이 되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할게.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마태복음 11 : 28-30 인도자
15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히브리서 8 : 12 인도자
391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민수기 33:1-2, 9:15-18, 20:8-12 설교자
292 사랑방
“ 훈련받는 광야교회 ” 정태일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216 다함께
인도자
455(3)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박태규 전향옥 / 봉헌위원 : 전향옥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공동기도문

남은 사람들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광야생활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게 하십시오. 아멘.

훈련받는 광야교회

이스라엘의 광야생활.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아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에서 나와서 행군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1>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민수기의 결론 부분에서 군사용어를 사용하므로 이스라엘 신앙공동체의 힘들고 어려운 광야생활을 군대의 훈련으로 규정합니다. 민수기는 교회가 광야에서 신앙공동체로 성숙하기 위해 훈련받는 내용을 전합니다.

훈련받는 광야교회. 민수기에는 신앙공동체가 훈련받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의식주 문제, 사람들에 대한 관계, 함께 공동체 삶을 이루는데 필요한 문제들을 사건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훈련의 중심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믿음으로 따르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 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였습니다” <신 8:2> 라고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은 고난의 길을 가는 오늘의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행7:36,38> 또한 이스라엘의 어려운 광야생활은 오늘의 교회들이 겪는 어려운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히 감정(개인의 기분, 분노와 미움 등)에 따라 판단하고 행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전도사 / 기도 : 전향옥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이번 주에는 꾸러기들이 좋아하는 음률놀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봄의 비, 봄의 꽃을 주제로 소리를 듣고, 몸으로 마음껏 표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빗소리에 따라 달라지는 움직임이 얼마나 귀엽고 아름다운지 정말 한 명, 한 명의 표현이 달라서 더 빛이 났습니다. 스카프를 이용해서 다채로운 표현을 해봤는데 작은 꽃에서 모두가 연결된 커다란 하나의 꽃을 만들고 마지막에는 나비가 되어 꽃을 누비는 자유로운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수요일에는 물맑음수목원에 다녀왔습니다. 햇별은 따스하고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었습니다. 혹시 춥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밥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몸을 계속 움직이는 꾸러기들에게는 너무 좋은 날씨였습니다. 추운 날씨를 고려해 장국을 챙겨가서 아이들이 춥지 않게 밥도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전부를 둘러보기는 어렵고 아이들이 맘껏 놀 수 있는 2개의 놀이터와 목재전시장을 구경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장소에서 재밌게 놀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봄의 맛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는 썩으로 인절미를 만들어먹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썩을 캐서 떡을 만들고, 그걸 각자 먹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모양은 다양하지만 모두 너무 맛있다는 말을 하면서 공동체 식구들과도 즐겁게 나눴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한 주간 봄이지만 사계절을 느꼈습니다. 어린이들의 옷 입은 모습을 보면 반팔부터 파카까지 다양각색인걸 보면 말이죠~^^

주제탐구 3주차 모든 조들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봄농사 조는 미니 비닐에 심겨진 어린 싹들을 관찰했습니다. 알맞게 잘 심었
배움과 가르침

는지, 심었는데 왜 싹이 안 나왔는지, 씨앗을 너무 많이 뿌려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농부님들이 위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봄 이야기 조는 봄 이야기를 직접 쓰고 예쁘게 책을 만들었는데 기대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봄 역사적 사건 조는 봄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고 현재 역사도 남길 건데 어떤 일을 기록으로 남길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봄 축제 조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봄 축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학교 봄 축제를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뭘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월요일 주제탐구 시간에 탐구한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 기대되고 기대 됩니다.

토요일 리더십 훈련을 가졌습니다. 에니어그램 검사를 하고 친구들과 동생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어린이학교에서의 리더십이 뭐냐는 질문에 아이들은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이번 주간에는 도보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몸을 잘 관리하자"라는 한 주간 생활 표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운동장 5바퀴를 뛰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꾸준히 운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5바퀴를 뛰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귀여운 1학년 멋쟁이들이 선배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끝까지 뛰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멋쟁이입니다.

멋쟁이학교는 봄학기중 가장 중요한 이동식 교육과정 중에서 도보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심화와 열린 수업은 도보여행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다양한 코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도보여행을 연습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도보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 교사 : 해 은 >

방모임에서 만납시다!

완연한 봄이 왔다. 그루터기 마당에는 몇 해 전에 심은 복숭아나무와 배나무의 분홍 꽃과 하얀 꽃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하고 바람에 서도 따스함이 느껴진다.

이렇게 좋은 봄날, 비대면 그루터기사랑방 모임을 가졌다. 코로나 상황과 여러 일들로 인해 거의 한 해 동안 방모임을 하지 못했었다.

비대면 방모임은 어색했지만 그래도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무료 화상회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터라 시간이 짧았고 처음이라 방법은 서툴렀지만,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얼굴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각자의 근황과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 “우리는 함께!”라는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팬데믹은 우리 삶의 형태를 바꾸어 놓고 있다.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연대를 끊어낸다.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 같다. 좋은 습관을 이루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지만 잃는 것은 너무나 빠르고 쉬운 것 같다.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서기에 좋은 시기이지만 훈련이 쉽지는 않은 것 같다. 마음이 무뎠어지고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는 것도 쉽지 않다. 이렇듯 혼자서 벽치고 힘들지만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또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해 본다.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연대감을 이를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비록 비대면 일지라도 만나고 교제하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겠다.

사랑방공동체 식구들! 모두 힘내시고 방 모임에서 만납시다!

그루터기사랑방 박태규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시편 40편

인도 : 권재만 목사

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북한>

북에서는 4월 15일에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로 지냅니다. 이에 맞춰 북장점검, 검열, 전방초소 실탄지급과 같이 옥죄면서 치적 세우기, 군중 체육대회, 전시회를 하며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종교의 영을 물리치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정보의 자유, 말하는 자유, 신체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진정한 봄이 오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예수원>

- 1) 장기 손님을 모집하여 일손 모집하는 일들이 부족함 없도록
- 2) 77기 훈련생 모집이 잘 되고 훈련이 잘 이루어지도록
- 3) 차기 리더십이 잘 세워져 공동체가 든든히 서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코로나-19로 소통이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공동체가 지역과 교류를 잘 하도록
- 2) 지역의 대형건들이 늘어가는데 사고가 나지 않도록
- 3) 김선희 선생님 다리를 다치셨는데 잘 치료되도록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봄기운이 매우 세차게 불어옵니다. 공동체 마당의 느티나무들도 푸른 잎을 자랑하며 새봄을 뽐내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사뭇 거칠게 불어오는 날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여름비처럼 시원하게 비가 내립니다. 봄을 맞아서 마당을 정비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화단을 새로 꾸미기도하고, 화단 너머로 뻗어나온 잡초들을 손이 바쁘게 제거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에 잔뜩 신경쓰고 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활기가 넘칩니다. 화요일에는 온라인으로 디아코니아 모임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방모임을 하니 기분이 새롭습니다. 다시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많이 쉬었던 터라 서로 적응이 필요한 듯합니다. 봄을 맞아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 정재훈 전도사 >